



자존심을 버리면

사람의 마음은 양파와 같이 가진 것 이라고는 겉껍이 쌓인 자존심밖에 없 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 처 럼 큰소리를 친다.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 부리고, 불평하고, 화내고, 싸우고, 다툰다.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 데 남은 반평생 을 보낸다. 그리고 힘든 인생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.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돌 아볼 기회가 되어 자신을 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아득하기만 하다. 자신 안에 겉껍이 쌓여두고 있는 자존심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.

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일들 을 할 수 있게 된다. 더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마음이 상해 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진다. 결국 자존심이라는 장벽 하나 세우겠다고 발버둥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다.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미 세워져 있는 담은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다.

자존심은 최후까지 나 자신을 초라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의식이다. 지금 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버리면 내에

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. 그 리고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.

자존심을 버리는 방법은 나의 주장 을 하지 않는 것이다. 나의 고집을 버 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다.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지는 않는다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좀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. 그렇지만 좀 늦으면 어 떠랴? 천천히 가는 법도 배우면서 다 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출가분하고 편안한 길이다.

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이 우습게 들 리고 정말 하찮은 인간이 거들먹거리 며 하는 말이라도 비난하거나, 비판하 지 말아야 하고, 불평하지 말아야 한 다.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절대 남 을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. 그리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.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괜찮지만, 예 의가 없는 것은 안 된다. 예의가 자연스 럽게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.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자. 겉치레 인사인지 정성이 담 긴 인사인지 상대방은 바로 안다. 벼 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속이 찬 사람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안다. 되지도 않은 것이 어른들을 만

나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인사도 없이 지나간다. 반드시 허리를 구부려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 좋다. 말로만 "안녕하세요." 하는 것보다 가급적 웃 는 얼굴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구부 리며 인사하자.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 하고 세워주라.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 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. 상대를 높여 주어야. 인정해 주 어라. 칭찬을 아끼지 마라.

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. 자동차 판매 왕이 "어떻 게 자동차 판매를 가장 많이 할 수 있 었느냐?"고 묻는 질문에 "내가 한 일 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 말할 때,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쳐 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뿐입니다. 그 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차를 추천했 을 뿐입니다." 라고 대답했다.

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마라.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인지 알 수 있다. 인색한 사람은 부모 라도 그 자식을 싫어한다. 돈을 잘 쓰 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. 복은 짓는 것이고 덕은 쌓는 것이다.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.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 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. 그것은 꼭 돈 이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. 상 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된다. 그것 이 바로 사랑이다.

자존심을 버리고 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빛이 난다. 그 자체로서 명품인생이 된다.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,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.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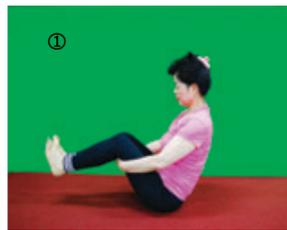
수녀의 요가 교실

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

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챙겨먹고 운동 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. 유명 건 강프로그램처럼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 과 프로세스를 만들었어도 자발적인 행동으로 꾸준히 목표를 두고 해야 성과를 내게 된다. 생활습관이 나를 강 자로 만든다. 기본에 충실하면서 습관 화 한다면 스스로 힘이 강해진다. 지금 부터 준비해두는 습관. 힘차게 시작 해 볼까요!

보트자세

효능: 앉아서 보트자세는 복부를 단 련하고 하복부와 허리부분의 지방분해 를 돕고 내장에 쌓인 독소물질을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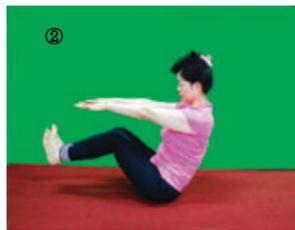
시켜서 배출시켜주어 근력을 강화시켜 준다.

동작①: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 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허리를 펴서 행동으로 꾸준히 목표를 두고 해야 성과를 내게 된다. 생활습관이 나를 강 자로 만든다. 기본에 충실하면서 습관 화 한다면 스스로 힘이 강해진다. 지금 부터 준비해두는 습관. 힘차게 시작 해 볼까요!

동작②: ①번 자세로 균형이 잡히면 천천히 손을 놓고 양팔을 뻗어 무릎을 펴준다. 힘들면 무릎 아래를 받쳐 중심 을 잡아도 된다. 10초 유지 5회.

윗배 아래배 트위스트 복근운동

효능: 누워서 안전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허리



에도 안정감이 있다. 복근과 내장 속 노폐물 제거. 장운동이 활발해져 독소 배출 효과적. 옆구리 군살 등 예쁜 몸 으로 변신시켜 준다.

동작③: 누워서 양다리를 붙이고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올린다. 깎지 긴 손을 머리 뒤에 두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린다. 복부의 힘으로 유지한다. 10초 유지 5회.

동작④: ③번 자세에서 오른쪽 팔꿈 치가 왼쪽 무릎에 닿도록 상·하체를 교차해서 만난다. 반대쪽도 한다. 양쪽 각각 10번씩 5회.*



生而不有也

생이불유야
날아주되 소유하지 않는다

도덕경 51장 해설

노자의 도를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있어서다. 행복 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원이 있다면 도덕경 속의 문장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. 여하 간에 도덕경의 진 수를 얻고자 하는 공부도 중간을 넘어 서고 있다. 자칫 타성에 젖은 문장의 앞에만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.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집중과 정진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 이다. 도는 인간이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우리 를 기다리고 있다. 도는 모든 생명 있 는 것들의 어머니(생명의 본체)다. 인

간이 품는 이상과 목적은 궁극에 행복 (어머니 품에 안기고자)하고자 함에 있 기 때문이다. 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리 수신하는 사람의 목표와 포부가 크고 넓어도 도를 통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 지는 않다. 때에 따라서는 정진이 잘 되지 않아 중도에 떠 생각할 수 있 다. 지루하기도 하고, 힘도 들고, 그 길 이 요원하기도 하거나, 지금까지 도와 거리가 먼 생활 습성으로의 질기게 끌 어당기는 마력(魔力)에 의해서 멀어질 계재다. 그러나 처음 세운 큰 뜻을 중 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닦아온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 초발심을 상기하 여 사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계기가 필요하다. 아마 이 장 에서도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 고 다시 한 번 도와 덕의 핵심 의미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

보여 준다. 망망대해를 항해해 본 사람은 안다. 현재 자신의 좌표가 정확히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그 목적지에 최고로 단시 일 내에 정확히 무사하게 도착한다는 사실을.

道生之(도생지): 도가 생명을 낳고

德畜之(덕축지): 덕이 기르고

物形之(물형지): 물질이 형성되고

勢成之(세성지): 세가 이루어지며

是以萬物尊道而貴德(시이만물존도이 귀덕):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 고 덕을 귀히 여긴다

道之尊(도지존): 도의 높음과

德之貴也(덕지귀야): 덕의 귀함은

夫莫之爵(부막지작): 억지로 떠받

드는 것이 아니고 而恒自然也(이항자연야): 항상 자연 스러운 것이다.

道生之(도생지): 도에서 생명이 나와 畜之 長之 遂之(축지 장지 수지): 기 르고, 자라게 하고, 길러 내며

亨之 壽之(형지 독지): 형통하게 하 고, 도탑게 하며

養之 覆之(양지 복지): 길러서 덮어 준다.

生而不有也(생이불유야): 날아주되 소유하지 않는다

爲而不恃也(위아불지야): 행하되 지 키려 않는다

長而不宰也(장이불재야): 기르되 주 관하지 않는다

此之謂玄德(차지위현덕):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.*

김주호 기자

허만욱 승사 칼럼

구세주의 소재를 열쇠 없이도 찾을 수 있나오

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며 희생적 이고 소상하시고 넓은 사랑의 소유자 이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양떼 즉 신미생으로 오신다. 양(羊)은 하나님의 상징인 동물인 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한자는 하나님같이 양(羊)자를 곁들이 고 있다. 선(善), 의(義), 미(美), 희(犧), 소상(昭詳) 이외에도 인간의 선망(羨望)의 대상은 하나님이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(贈物)은 영생 이다와 같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한자에도 양(羊)자가 곁들여져 있으 니 놀라운 일이다.

구원은 건질 구(救), 당길 원(援)으 로 되어 있으니,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물에 빠진 형상이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이 생각한다. 즉 인간 자체가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으로, 제 구실을 할 수 없으니,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다. 물에 빠졌으니 제3 자가 끌어잡아 건져 올리는 것이 구 원의 뜻이니, 이것이야말로 구세주께 서 하실 책무이다.

오늘날 신천신지의 개척자로 출현 하신 구세주께서는 너무나 험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오셨 다.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별천지의 신적 존재이다. 그는 순교자요 부활자요 완성자요 전지전 능자이신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구세주요 양자물리학 상 영점공간 을 점유하고 계시는 영계(靈界)의 대 왕(大王)이시다. 물리학자인 라즐로 박사는 미립자

들이 가득한 영점공간을 "무한한 가 능성의 바다"라고 정의하고 이곳은 무한한 정보창고요 영혼의 공간이요 신의 마음이요 신의 공간이며,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, 구원, 해탈 등 을 수여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.

지금 우주권세를 장악하고 계시는 구세주께서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께서 하나님으로 완성하신 에덴동산 의 주인공이시다. 장구한 역사의 흐 름과 함께 만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대망의 하나님이다. 그런데 그렇게도 존귀하신 신인 하 나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마법의 황금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과연 어 디일까? 여기 그 열쇠의 주인공이 나 타났다.



모든 곳에 다 계신다.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다.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.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. 모든 것에 다 능통하시다. 위 5가지 조항에 다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. 바로 조희성님이시다. 이분 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참 주인공이신 정도령이다. 그는 영생의 길의 안내자요 진리의 본체이며, 곧 하나님이시매 결국 생명의 원천이시 다.*

승리신문

1990. 3.3 등록번호 다 - 0029

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

본지는 구세주(정도령, 미륵불)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(영생학)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.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
우 422-826
홈페이지 www.victor.or.kr



광고 및 구독신청
전화 (032) 343-9886
FAX (032) 349-0202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.

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

-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역곡제단 : (032)343-9981-2 | 부산제단 : (051)863-6307 | 진주제단 : (055)745-9228 | 포항제단 : (054)292-5455 | 대전제단 : (042)522-1560 | 神戸祭壇 : (078)862-9522 | 神奈川祭壇 : (045)451-3150 | London : (0208)894-1075 |
| 수원제단 : (031)236-8465 | 영도제단 : (010)6692-7582 | 울산제단 : (052)291-1849 | 순천제단 : (061)744-8007 | 청주제단 : (043)233-6146 | 下關祭壇 : (0832)32-1988 | Philadelphia : (215)722-2902 | |
| 안성제단 : (031) 673-4635 | 김해제단 : (055)327-2072 | 진해제단 : (055)544-7464 | 정읍제단 : (063)533-7125 | 충주제단 : 010-9980-5805 | 久留米祭壇 : (0942)21-4669 | | |
| 평택제단 : (031)652-6438 | 대구제단 : (053)474-7900 | 영천제단 : (054)833-7121 | 군산제단 : (063)461-3491 | 금마제단 : (063)853-6673 | 岐阜祭壇 : (0584)32-1350 | | |
| 이족제단 : (031)672-6786 | 마산제단 : (055)241-1161 | 사천제단 : (055)833-7866 | 광주제단 : (062)524-4555 | 橫濱祭壇 : (045)261-6338 | 大阪祭壇 : (06)6451-3914 | | |

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